

## The Experience of Using the Shelter for Abused Victims among the Abused Elderly

Hye Sun Kim<sup>1#</sup>, Kum Ju Kwon<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46, Jungang-ro, Samcheok-si, Gangwon-do, Republic of Korea

<sup>2</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6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using the shelter for abused victims among the abused elderly victims. The researchers collected the data from nine abused elderly victims who previously stayed or are currently staying in a shelter for abuse victims and analyzed them using Colaizzi's method, as one of the phenomenological methods. Their experiences were classified into eight categories, such as "Standing at the End of Heartbreaking Life," "Seeking Help out of a Hard Life," "Starting a Strange Life with a Sad Heart," "Living a Life of being Welcomed," "Recognizing a Wound in Life," "Becoming More Nervous as the Day of Discharge Approaches," "Designing a New Life," and "Living with Memories of the Shelter". The essence of their experiences in using the shelter for abused victims based on the eight categories was found as "Rest and Preparation for a New Life."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operation of a shelter dedicated to the abused elderly victims as well as a follow-up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elderly abuse, experience of abused elderly victims, shelter for abused victims, qualitative research

### 1. 서론

우리사회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유례없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12만 5천명(전체 15.7%)로, 전체 인구의 12.4%(629만 7천명)인 0~14세 유소년인구 보다 높고(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4%로 세계 평균(1.2%) 보다 낮았다(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2018).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7%),

2017년에는 고령사회(14%)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8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삶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률은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인 45.7%로, 13.8%의 전체인구 빈곤률과 비교할 때 노인들 삶이 빈곤한 상황에 있다(Jung, 2019). 또한 기댈 곳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2011년(68.6%)에 비해 2017년(72.4%)로 증가했다(Lee, 2018). 게다가 잦은 인구이동

# The 1st author: Hye Sun Kim, Tel. +82-33-570-6363, Fax. +82-33-570-6352, e-mail. [welcom-kim@kangwon.ac.kr](mailto:welcom-kim@kangwon.ac.kr)

\* Corresponding author: Kum Ju Kwon, Tel. +82-2-944-5018, Fax. +82-2-980-2222, e-mail. [kkj@iscu.ac.kr](mailto:kkj@iscu.ac.kr)

이 자연스러운 현 사회에서 살던 곳에 살기 원하는 노인은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노인 중심의 윤리인 ‘효’ 사상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에 돌봄의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Kim, *et. al.*, 2004).

노인들은 이처럼 과거와는 다른 지위와 존재감으로 가족과 사회에 부담과 갈등의 대상이 되면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Zink, *et. al.*, 2003). 노인학대란 단어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정서와 부합하지 않았지만 1990년대 이후 대중매체에 부분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호해야 할 정도의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Ko, 2014). 우리나라 노인학대 건수는 2013년의 10,162건에서 2017년에 13,309건으로 약 31%나 증가했고(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8), 심지어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 신고되는 노인학대 사례는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Lee & Kim, 2016).

이에 정부는 2004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예방과 개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을 학대상황과 분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치유와 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필요에 따라 쉼터로 표기함)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어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전문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2019년 현재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학대노인의 임시거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여 퇴소 후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8: 7-8).

그러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여건이 기관 취지에 부합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열악하다. 노인인구수의 증가와 노인의 빈곤, 가족과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 변화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대피해노인이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은 전국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게다가 한 개소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5~9명으로 적은 수만이 입소할 수 있고, 남녀의 방은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지

만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보장에 어려움이 많으며, 학대피해노인의 학대문제를 개입하기에는 상주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도 1명 뿐이다(Kwon & Kim, 2018).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대피해노인들이 학대의 위기상황에서 자의든 타의든 선택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고, 그 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대피해노인들은 학대를 통해 신체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조기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황폐화 되는 삶을 살아간다(Seo & Lee, 2016). 이들을 학대상황에서 분리시켜 안전성을 확보해 주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학대피해노인들에게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밝히는 것은 쉼터의 존재의 의미와 쉼터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하며 자신에 대해 수치스럽고 자기비하로 느끼는 심리·정서에 대해 세밀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적연구의 접근성이 필요하다(Kim, 2017: 501).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노인학대 연구들은 정작 노인이 경험하는 삶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Woo, 2002). 비록 연구참여자인 학대피해노인의 관점에서 특정한 상황을 파악하려는 질적연구(Lincoln & Guba, 1985)가 실시되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 개입(Kang & Lim, 2005; Ko, 2014)에 초점을 두었거나, 직·간접적으로 재학대를 신고한 노인들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반적인 개입에 대한 경험(Kim, 2015)을 분석했거나, 2014년에 발행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례집에서 39사례를 분석하여 노인학대와 가정폭력의 관계를 탐색(Kim, 2017)하는 연구에 그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경험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경험이 무엇인지를 질문으로, 학대피해노인의 갖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의미를 알아보

고 향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활성화 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 1. 학대피해노인

우리나라는 1990대 중반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1997년 가정폭력의 방지목적으로 두 개의 특별법<sup>1)</sup>이 제정되었고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Han & Kim, 2000). 노인학대가 가정폭력의 영역으로 시작된 이유는 노인학대 행위자의 70% 이상이 배우자, 아들, 딸 등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의 정의, 신고의무, 응급조치, 노인학대신고전화 운영, 노인보호기관 설치 등(Lee, 2018: 247)을 통해 60세 이상의 노인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학대 현황은 2015년 3,818건, 2017년 4,622건, 2019년 5,24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의 75.8%가 여자 노인이었다. 연령별로 70대가 44.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80대가 30.9%, 60대가 17.5% 순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38.1%, 경제적 학대 5.2%이며, 중복학대 총 건수는 8,200건이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은 전용쉼터 퇴소 후에 66.5%가 원가족으로 복귀했고, 6.8%가 시설에 입소했으며, 6.8%가 타부양자 가정으로 돌아갔고, 7.8%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었다(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9).

노인학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학대피해노인이 증가함에도 여전히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개입이 어려운 이유는 노인학대의 본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학대피해노인은 행위자와 대부분 친족으로,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행위자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 행위자 처벌은 노인학대를 은폐시킬 가능성이 높다(Lee, 2018: 256)

하지만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남겨 신체적 건강이 손상되어 조기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떤 변인과 상관없이 자살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Bae & Um, 2009; Yang & Ju, 2011; Seo & Lee, 2016). 또한 노인학대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낮게 하여 노인의 삶을 황폐화시킨다(Seo & Lee, 2016).

###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학대 문제에 개입하고자 노인복지법 제 34조의 5 제1항과 2항에 근거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3개소로 노인학대 신고 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피학대노인의 임시거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여 퇴소 후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8: 7-8).

하지만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인정받는 노인시설은 아니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2004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으로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는 제 39조 7(응급조치 의무 등)의 법률에 의해 2016년까지 광역시·도에 16개소가 임의시설로 운영되어 왔다. 이후 학대피해노인쉼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고, 후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이다.

터는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2017. 3. 14.)으로 제 39조의 19에 의해 법정시설로 제도화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즉 숙식, 쉼터에서의 생활지원,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 제공과 기본 의료비 지원,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등의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와 퇴소,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8).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입소기준은 2017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입소할 수 있다. 치매 등으로 의사소통능력에 문제가 있는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행위자 외의 보호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동의를 받아 입소가 가능하다. 입소가 결정되면, 건강검진을 가장 먼저 실시하며, 피해노인은 쉼터에서 4개월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연간 6개월까지 이용가능하다.

### III. 연구방법

#### 1.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현상학이란 있는 ‘사태 자체로(to the things themselves)’(Yeu, 2014)를 사상적 토대를 기반하며 편견 없이 보이는 그대로를 사실에 기반을 두고 성실하게 묘사하는 것으로(Lee, 2007), 인간의 체험의 의미 또는 생활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h, 2008). 여기서 현상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사태’란 연구참여자의 개별적 경험이 경험 전체를 개방적으로 이해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Hong, 2011). 따라서 연구자는 의식에 보이는 대로 현상을 살피고, 체험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가감 없이 기술해야 한다(Lee, 2007).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참여자의 일상적 표현을 전문용어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치는 Giorgi, 일상생활의 경험으로부터 출발과 일화를 강조하는 Van Manen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Lee & Park, 2019), 본 연구에서는 Colaizzi(1978)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대피해노인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여 일상생활을 생생히 기술하고자 한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연구자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에게 연구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학대피해노인들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한 후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모집하였다. 연구자들은 2017년 5월에서 7월까지 경기도, 충청권, 영남권, 전라권 등 5개소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방문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9명의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한 경위부터 입소생활과정 그리고 퇴소 후 생활의 경험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약 2시간 정도 실시되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녹취록을 필사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체험을 변형시켜 그 본질을 텍스트로 표현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Shin, et. al., 2004). Colaizzi의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한 내용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찾고, 다시 의미있는 진술에서 구성의미가 도출하여, 주제 및 주제군을 분석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Han, 2019). Colaizzi(1978)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해 낸다. 둘째, 의미있는 진술들을 주의깊게 보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한다. 셋째,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

술로부터 의미를 구성한다. 넷째,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철저하게 기술한다. 여섯째,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진술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현상학적 연구와 자문을 여러 차례 수행했던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의 자문과 감독을 받았고, 선지식이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편견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였다(Lincon & Cuba, 1985). 그리고 연구자들은 전문직의 윤리와 연구상의 윤리를 모두 고려하여 자율성, 해악 금지, 자비 원칙, 정당성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였다(Beauchamp & Childress, 2001). 연구자들은 각 원칙에 따라 연구참여자에게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결과 활용, 면담내용의 녹음, 철회 가능성 여부, 면담내용 활용범위, 면담비용, 연구참여자를 위한 후속 상담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고지했으며, 합의한 면담비용을 지불하였다.

### 3. 연구참여자

9명의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는 2명, 여자는 7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부부는 1쌍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나이는 67세에서 80세였으며, 학대유형으로는 자기방임 1명, 방임 1명, 중복학대가 7명이었다.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는 자기방임을 제외하고, 자녀가 4명, 배우자나 동거인이 4명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거주형태는 독거 상황인 2명

을 제외하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관절염, 청각장애, 당뇨, 심장질환 등의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립적인 일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 IV.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원 자료를 계속 읽어가며 현상학적 반성을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말한 내용 중 의미있는 진술은 약 90개였고, 이를 근간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의미는 50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미 구성을 통해 다시 <Table 2>와 같이 26개의 주제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경험에 대한 본질적인 주제는 ‘역장 무너지는 삶의 끝자락에 서다’, ‘모진 목숨을 이어갈 도움을 구하다’, ‘서러운 가슴을 안고 낯선 삶이 시작되다’, ‘대접받는 삶을 살아보다’, ‘상처를 보듬다’ ‘퇴소 날짜를 앞두고 애간장이 녹는다’,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다’, ‘쉼터에서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다’의 8개의 주제묶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에서 추출된 경험의 본질은 ‘쉽과 새 삶의 준비’이었다.

### 1. 역장무너지는 삶의 끝자락에 서다

연구참여자들은 더 이상 머물 집이 없어지거나 나와야 할 처지에 내몰리기도 하고, 스스로의 삶을 방임하거나, 자녀의 폭력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는 등 삶의 지탱하기 힘든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 1) 버림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사정으로 자녀의 집에서 살며 가사 일을 도와줬지만 막상 손자녀의 성장으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거나 은퇴 후에 부부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와야 할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ase	Age/Sex	Perpetrator	Abuse Type
1	67/ F	Myself	Self-Neglect
2	79/ M	Son	Physical/Emotional
3	80/ F		
4	77/ F	Daughter	Neglect
5	67/ F	Son	Physical/Emotional
6	67/ F	Spouse	Physical/Emotional
7	76/ F	Son	Physical/Emotional
8	77/ F	Spouse	Physical/Emotional
9	69/ F	Spouse	Physical/Emotional

Table 2. Experience of the abused elderly victim using the abuse victims' shelter

Categories	Theme Clusters
Standing at the End of a Breaking Life	1. I was abandoned 2. I lost my reason to live 3. I felt safer outside the house
Seeking Help Out of a Hard Life	1. I actively looked for support services 2. I informed the people of my situation 3. I got help from the police
Starting a Strange Life with a Sad Heart	1. I couldn't sleep in a fearful and unfamiliar environment 2. I was so sick that I couldn't sleep. 3. I started a narrow and uncomfortable communal life 4. I stayed in the feelings of a sinner. 5. The house I left behind was on my mind
Living a Life of being Welcomed	1. I experienced freedom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2. I was carefully cared for 3. I was as comfortable as a queen. 4. I enjoyed various cultural life 5. We accepted the shelter as a place to live
Recognizing a Wound in Life	1. I let go of my old feelings. 2. We opened our hearts to each other 3. I learned a new way of life
Becoming More Nervous as the Day of Discharge Approaches	1. I felt uncomfortable because I felt like I'm staying too long 2. My stomach was burning with nowhere to go 3. I made a social worker embarrassed
Designing a New Life	1. I prepared a place to stay 2. I prepared a livelihood plan 3. I created resources for my help
Living with Memories of the Shelter	1. The shelter was a lifesaver 2. The shelter is my second home

‘엄마. 우리 집에 애줌 봐주면 안되나.’ 그래서 와서 저기 집으로 간 거예요 애 봐주려... 10년 넘게 살았어요... 살다가 저거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은 콧구멍 만한데 사람이 4명이 살려고 하면 방이라도 널찍해서 자는 것도 아니고 거실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자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안 따라가고 봐 준거지(연구참여자 3).

마누라를 믿고 준 거죠 그랬더니 공동명의로 하라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자기 명의로 돌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장에서 은퇴하고 가니까 집에서 1년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재산세 나오는데 보니까 마누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억울해요 어떻게? 대판 싸우고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된 거죠(연구참여자 7).

2)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함께 살던 자녀의 사망으로 질병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살림살이를 다 없애버리는 등 자신을 방임하였다.

내가 큰자식을 잃어버려서 그 뒤로 내가 우울증이 오고 병이 막 오고 심장병이 있지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 전신이 다 아프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병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살림살이 다 없애고..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연구참여자 1).

3) 집 밖이 더 안전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나 자녀의 상습적인 언어적, 신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지만 자신의 집은 더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 자신을 위협하는 장소임을 받아 들여야만 했다.

우리가 나온 지도 좀 됐지만 나온 것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자기(큰 아들) 눈에 거슬리는 것 있으면 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양반은 나 보다 더 많이 나와서 생활을 했거든요 추울 때도 이불도 없이 누워 자고(연구참여자 2)

막 나가라 그러고 내쫓아 나를... 술 취하면 엄마가, 엄마가 아니야. 막 너라 그러고 욕하고(연구참여자 6)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더니 집을 다 때려 부셨어. 밥통이건 뭐건 다 때려 부수고 식탁이랑 다 때려 부순 거야(연구참여자 4)

저 근심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이상한 양아치 같은 남자를 하나 만나서 제가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연구참여자 8).

2. 모진 목숨을 이어갈 도움을 구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까지 내몰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생을 마감할까도 생각해봤지만 마음 속 한 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살 궁리를 하였다.

1)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연구참여자들은 막막한 현실을 지탱하기 어려워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도 했다.

내가 자살하려고 약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 되면 먹고 간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우연히 TV를 보게 됐는데 TV에 자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국회에서 생명사다리라는데 어려운 그런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부지런히 적었죠 그게 날 살린 거예요(연구참여자 7).

옆 집에서 자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내가 나이도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쫓겨나서 지금 눈도 한 쪽이 안 보이는데 어딜 가겠나 싶어서 파출소로 간 거예요(연구참여자 8).

2) 내 처지를 주변에 알렸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환경에서는 살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했다.

자식을 잃고 나서 병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살림살이 다 없애고 아들한테 이러다 내가 죽겠다. 죽겠으니 내가 어디 갈 때, 한번 알아봐라 이랬는데(연구참여자 1)

이장은 이제 우리 사정을 다 아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따라 갈 수 없다고 나 좀 이해해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한번은 동사무소도 몇 번 갔어요 몇 번 가서 이장이 전화로 어디어디를 해 보더라고 해보더니 쉼터같은 것이 있는 줄은 몰랐겠지. 처음에는. 그래서 전화해서 쉼터로 전화했는가 봐요(연구참여자 3).

3) 경찰로 부터 도움을 제공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찰이 개입할 정도의 폭력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경찰서에서 아가씨가 전화가 왔더라고 어디시냐고.. 쉼터가 있으니까 불편해도 거기 가서 있을꺼냐고 그러더라고 나야 그날 저녁에도 갈 때가 없어서 짐질 방 가서 잘 판인데. 나야 고맙지. 그렇게 하면 고맙죠(연구참여자 4).

내가 내쫓겨 있으니까.. 순경이 보고 여기 데려다 준대요(연구참여자 6).

3. 서러운 가슴을 안고 낮선 삶을 시작하다

연구참여자들은 오갈 때 없는 자신이 처지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으로 낮선 쉼터에서 먹지도 잘 수도 없었다. 죄인의 심정으로 아픈 몸을 부여잡고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어색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가족과 집에 대한 걱정으로 몰래 쉼터를 나가 집을 서성이기도 했다.

1) 두렵고 낯선 환경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 입소 직후의 낯설음과 오갈 때 없이 입소했다는 불편한 마음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한 방을 쓰는 다른 입소노인과 말붙일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낯설고.. 여기 처음 올 때는 어떤 데인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연구참여자 3)

처음에는 얘기 안했지 서로 처음에는 얘기 안했는데.. 내가 할 말이 뭐있어. 그냥 들어가니까 샤워하고 여기 방에서 할머니랑 같이 주무셔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샤워하고(연구참여자 4)

처음에 와서는 밥도 몇 끼니 못먹었어요.. 내가 오갈 때가 없으니까 여기를 왔지 않냐, 그 생각으로 마음이 막 그래서 3일을 잠을 못 잤어(연구참여자 8).

2) 만신창이가 된 몸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불편한 마음과는 달리 긴장이 풀리면서 그동안 참았던 아픈 몸의 통증을 고스란히 느꼈다.

와서 이틀 저녁 잤는데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고 많이 아프니까 나는 아닌척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숨 쉬는 게 내쉬고 들이쉬고 잘 안되고 하니깐 그리고 걸음걸이가 걷는 진동에 의해서도 엄청 통증이 심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 5).

3) 좁고 불편한 공동생활을 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사람들과 한 방에서 함께 지내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거주하는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다.

남자 방도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거처하다가 남자분이 1명 더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많을 때는 그러면 같이 쟁겨 자고 방이 좁 좁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막 인원초과 될 때는 아까 보셨겠지만 여자들 이 막 들어올 적에는 한방에 4명씩 들어올 때는 얼마나 불편해요.. 여자, 남자가 같이 생활하니까 자유로운 활동이 안 될 것 아니에요 화장실은 또 하나고 같이 공용으로 써야 되고 샤워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21세기엔 그런 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고 남자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근데 이견 하나니까 인구는 많을 적에는 8명씩 이렇게 되잖아요 남녀 혼합해서 엄청 참고 기다려야 되고 급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애로점이 많았죠(연구참여자 7).

나랑 같이 한방을 썼는데 이 쪽편에 이쪽침대에 주무시고 나는 이쪽침대에 자는데 잠꼬대를 너무 많이 해서 못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언제쯤 됐는지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잠꼬대를 하도 해서 야 자 하고 소리 지르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자려고 하니깐 잠꼬대가 너무 심해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연구참여자 3).

4) 죄인의 심정으로 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짜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감사했지만, 집조차 없이 생활하는 자신의 처지가 죄인 같아서 쉽터 생활이 조심스러웠으며, 군말 없이 쉽터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거기서는 해달라는 것 없어 우리가 거기서는 해주 는 대로지 우리가 뭘 해달라고 요구는 안 해. 그냥 죽 주면 죽 먹고 밥 주면 밥 먹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뭐 해 달라. 뭐 먹고 싶다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 어요.. 우리가 거기다 요구할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와서 공짜로 얻어먹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데(연구참여자 4)

반찬이 잘 나오던 못 나오던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일단 내가 죄인이나 마찬가지로(연구참여자 7).

5) 두고 온 집이 마음에 걸렸다

연구참여자들은 비록 자신에게 폭력을 휘둘렀지만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어 몰래 집 밖을 서성이기도 했고, 두고 온 집안 살림이 못내 아쉬워하며 집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다.

가보면 막 몰래 가서 보면 몰래 가서 밖에서 보고 오고 그러지(연구참여자 6)

집 살림 때문에 그것이 미련이 있어서(연구참여자 8)

4. 대접받는 삶을 살아보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유롭고 보살핌을 받는 생활과 다양한 여가활동들을 통해 자신이 여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쉽터를 자신이 살 공간으로 받아들였다.

1) 난생 처음 자유를 경험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쉽터에서 제공하는 자유로운 생활이 어색하기만 했지만 되도록 편안하게 지내며 짐을 가지려 했다.

아침 먹고 나면 자고 싶은 사람은 자고 걷는 사람 걷고. 외출 하려고 하면 실컷해요(연구참여자 3).

2)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 직원들이 식사도, 잠자리도 잘 챙겨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는 등 자신의 처지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봐주는 호감을 누렸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천사야 천사. 어떻게 이렇게 천사같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데를 다 왔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우 받는 데를 왔다고 근데 진짜예요 너무 잘해줘요(연구참여자 4).

말한마디라도 하시는 것 보면 다 이쁘게 하고 고맙게 해주고(연구참여자 3)

나를 위로해주고 못 먹으면 선생님들이 죽이라도 썰어서 날 먹인다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너무 고맙습니다(연구참여자 1).

너무 호강하다 가지. 긴 날짜는 아니지만 진짜 편안하고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부모도 그렇게 안 해주어야. 그리고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셨지(연구참여자 6)

3) 여왕처럼 편안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고, 쉼터 직원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호사를 누리며 여왕같은 대접을 받았다.

일단은 근심걱정 하시지 말고 마음을 편히 설 곳이 여기니까 마음을 편히 쉬시라고 근데 정말 저한테는 큰 위안이었어요(연구참여자 5).

여기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여왕 대접 받았지 뭐. 너무나 잘해주시지. 밥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도 어디 갈 때 되면 내려가서 좋은 밥에다 구경시켜 주고 한번씩(연구참여자 8)

4)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겼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해주는 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만드는 거는 오만 거 다 만들었어요 비누도 만들고 꽃같은 것도 하고 여기 선생님들도 프로그램 웃음하는 그런 선생도 왔고, 모래치료도 이런 상자에 담아서 그런 것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연구참여자 3)

는 또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걸 엄청 좋아해요 화투 같은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내가. 분재도 만들고 노래 같은 것도 하고 나는 노래는 잘 못하니까 그냥 그런데 뭐 만드는 거 같은 거. 요리도 하고 별거 다해요 매일매일 토요일만 안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연구참여자 6)

5) 살 공간으로 쉼터를 받아들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기도 하고, 쉼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면서 쉼터를 나의 일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선생님 말 따라 이제는 그쪽 미련을 버려야겠다. 그래서 여기 쉼터가 내 삶이 됐구나(연구참여자 8)

내가 무능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 보다 세수하고 청소하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더 나잖아. 그래서 내가 청소는 내가 할게. 그리고 나 있는 날은 하루도 안 빠지고 청소를 맨날 했어(연구참여자 4).

5. 삶의 상처를 보듬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며 어느 때든지 경청해주는 쉼터 직원들과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입소노인 때문에 혼자만 앓고 살아왔던 지난 아픔을 꺼내기도 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1) 목음 감정을 흘려보냈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 직원의 공감어린 경청에 목혀놓았던 상처를 꺼내기도 했고, 자신의 사연을 연상하게 하는 노래를 부르며 마음 속에 가두어 두었던 한을 풀어내었다.

새벽이죠 1시, 2시 됐었으니까. 주무시다 말고 나오셔서.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자꾸 시키니까 한마디, 두 마디 하다보니까 살아온 제 인생사가 다 나오게 되었죠..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더 복 받혀서 더 울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풀리기도 하면서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더라고요.. 한마디를 풀다보니까 무슨 실타래 끈 하나 잡아당기면 술술 풀리듯이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연구참여자 5).

노래 부르면서 우는 사람도 많았고 노래 부르니까 자기 마음이 서운했지. 그래서 눈물 나고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연구참여자 3).

2) 서로 속마음을 터놓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에서 생활하는 다른 입소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힘들었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를 받았다.

할머니도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고 나도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놓고 할머니하고는 어차피 할머니가 헤어지면 여기 와서 나를 홍보겠어. 뭘 하겠어. 그러니까 서로 털어놓고 했지(연구참여자 4)

친근감이 생기더라고 같이 생활하고.. 거의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자식이 부모를 두드려 패고, 칼가지고 대들고 학대받는 건 나랑 비슷한 거죠(연구참여자 7).

3)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웠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 직원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 및 이미 입소한 다른 노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되돌아보고 지

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법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진작 여기를 왔으면 우리 아들하고도 안 싸웠다 그랬어. 내가. 내가 지금은 우리 아들하고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아들이 전화 오면 ‘우리 아들~’ 이리면서 전화 받고 ‘아들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라고 해요. 근데 그전엔 내가 그런 것을 못했어요 여기서 배웠어요(연구참여자 4).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종합하니까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이 세상에 한번밖에 왔다가는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자살이라는 건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더 강해진 거지(연구참여자 7)

6. 퇴소 날을 앞두고 애간장이 녹는다.

연구참여자들은 퇴소 날이 다가옴에 따라 퇴소 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속이 타들어가면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쉼터 사회복지사에게 지나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1) 오래 머무는 것 같아 눈치가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가 일시적으로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있는 것은 아닌지 쉼터 직원들에게 괜히 눈치가 보였다.

집으로 가신 분은 한 달 정도 넘게 있다 가신 분도 있고 나는 길게 버티고 있으니까 선생님 보기도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오래있으니까.. 두 달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했는데 2달 넘으니까 3개월이 다 되는데 어디를 가야되는데 여기 3개월 지나면 못 있는다는데 그런 생각은 했죠(연구참여자 3).

2) 나갈 곳이 없어 속이 타들어 갔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쉼터 퇴소 후에 나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고 불안하여 마음이 힘들었다.

*여기 나가면 갈 곳도 없고..가서 모임이라도 노래 부르는 것도 부를 힘이 없어요..답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3개월을 채우고 나가도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우린 여기서 채워서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내가 살아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표현 못하고 남들 웃으면 웃고 하지만 속이 아니야 연구참여자 2)*

### 3) 애꿎게 사회복지사만 애먹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 퇴소 후에 생활에 대해 의논하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인 쉼터 사회복지사에게 조급한 마음에 대안을 무례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들만 더 있으면 3개월인데 담당선생님한테 많이 졸랐지..내 땀엔 조금해서 선생님보고 자꾸 왜 이렇게 못 움직이냐고 자꾸 묻고 그러니까 선생도 그때는 당황했을 거야. (연구참여자 3)*

## 7. 새로운 삶을 설계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퇴소 계획과 결정을 쉼터 사회복지사와 같이 의논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준비하며, 생계에 필요한 지원을 도움받았다.

### 1) 머물 곳을 준비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퇴소 후 거주할 주거 공간에 대해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정보를 얻고 의논하면서 결정하였다.

*희망적인 얘기 해주고 요양원에 가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가게 되면 어떻게 가면 좋다.. 참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연구참여자 7).*

### 2) 생계를 유지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 사회복지사와 같이 동행하면서 퇴소 후에 생계를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정부 수급을 다 해준 거예요 제 담당 선생님이. 익산을 두 번 세 번 나 데리고 다니면서 동사무실 가서..갈 데도 없는데 눈은 한쪽 못 보지 또 발도 한쪽은 절뚝거리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고 걱정을 하다가 그 담당선생님이 나를 정부 수급자로 만들어 준 거예요(연구참여자 8).*

### 3) 지켜봐주는 사람들을 만들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쉼터 사회복지사와 퇴소 후에 다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 또는 비공식 자원을 연계하며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었다.

*내가 같이 여기 있었던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형님, 몸은 어떠세요?'라고 묻더라고요(연구참여자 1).*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회관 사회복지사가 여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꼭 방문해요 잘 지내고 있다. 죽어봐야 일주일, 그 다음 오는 시간까지는 방치가 되는지 몰라도 일주일 안에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가끔 전화 걸어주고 상당히 고맙죠(연구참여자 7).*

## 8. 쉼터에서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다

연구참여자들은 쉼터로 인해 죽을 목숨이 살 수 있었고, 쉼터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자원들을 얻을 수 있었다.

### 1) 쉼터는 생명의 은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학대로 인해 죽을 수도 있었던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준 쉼터를 제 2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컴퓨터가 저한테는 완전 생명의 은인이예요(연구참여  
여자 8).

내가 여기 없었으면 죽었을지 몰라요 여기 없었으  
면 죽었을지도 어디로 갈지를 몰랐거든요 몰라서 그  
냥 어찌저찌해서 여기를 알아서 내가 살아났거든요..  
여기 안 있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다. 약을 사다 먹고  
죽었던 죽었을 거대(연구참여여자 1).

컴퓨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런 생각  
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어... 어디어디 해서도 난 아직  
모르는데 컴퓨터가 없었으면 내가 어디로 갔을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컴퓨터 없었으면 어디로 갔을까.. 어떻  
게 됐을까 이런 생각. 내가 컴퓨터 없었으면 어디로 갔을  
까. 그런 생각. 지금도 아직도 그런 생각해요(연구참여  
자 3).

제 2의 생명. 배신당하고 제 2의 생명. 제 2의 생명  
을 날 구해준 곳이 컴퓨터죠 나는 100% 그렇게 생각해  
요 그래서 제 2의 생명이 이제 컴퓨터에서부터 새로 시  
작되는 거죠(연구참여여자 7).

## 2) 컴퓨터는 제 2의 친정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컴퓨터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컴퓨터를  
방문하거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는 등 컴퓨터와의  
연계를 계속 유지했다.

친정이에요(연구참여여자 8).

절룩절룩하면서 다닙니다. 그래도 여기 오라고 하  
면 신이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서 오라고하면 잠  
도 안오고 혼자서 좋아요.. 친정에 오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연구참여여자 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피해노인전용컴퓨터  
이용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4개  
권역 5개소의 학대피해노인전용컴퓨터에 입소중이거나  
입소했던 9명의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질적연구

를 실시하였다. 질적연구는 당사자에 대한 깊은 이해  
를 기반으로 심리·정서를 탐색할 때 적합한 연구방  
법이다(Kim, 2017: 501).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된 연구  
참여자의 학대피해노인전용컴퓨터 이용경험은 ‘역장 무  
너지는 삶의 끝자락에 서다’, ‘모진 목숨을 이어갈 도  
움을 구하다’, ‘서러운 가슴을 안고 낮은 삶을 시작하  
다’, ‘대접받는 삶을 살아보다’, ‘상처를 보듬다’, ‘퇴소  
날을 앞두고 애간장이 녹는다’, ‘새로운 삶을 설계하  
다’, ‘컴퓨터에서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다’의 8개의  
주제묶음이었다. 그리고 8개의 주제묶음을 통해 추출  
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피해노인전용컴퓨터 이용경험  
의 본질은 ‘쉽과 새 삶의 준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요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현재 학대피해노인전용컴퓨터가 학대피해노인  
에게 가지는 의미를 탐색할 수 있었다. 학대피해노인  
에게 컴퓨터는 쉽고 새 삶을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즉,  
학대로부터 분리되어 머무는 안전한 공간이자, 학대  
로 인한 몸과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회복하고 치유하  
며, 퇴소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친정과 같은 장소였다.  
이는 학대피해노인전용컴퓨터가 안전한 보호뿐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판단능력이나 결정능력, 인간  
성 회복, 정서적 치료 등 피해를 극복하여 한 인간으로  
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컴퓨터의 기능(Kwon  
& Kim, 2017: 5)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대피해노인전용컴퓨터 입소노인은 U형태의  
긴장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대피  
해노인들은 컴퓨터 입소 초기에 낮은 환경에 대한 불안  
감과 더불어 지친 몸과 마음으로 긴장된 상태에서 생  
활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컴퓨터 직원과 입소  
노인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통  
해 안정감을 갖고 학대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와 아  
픔을 치유 받고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 입소기간 내에  
퇴소 후에 삶을 준비해야 하는 압박감은 시간이 지날  
수록 높아져서 퇴소가 다가올수록 다시금 현실과 직  
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입소노인은 자기 방입, 신체 및 정서적 폭력, 방입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입소하기 때문에 쉼터는 일차적으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과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노인과 같은 방을 쓰거나, 남성과 여성노인이 같이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 등 열악한 상황이었다<sup>2)</sup>.

넷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거주기간 규정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쉼터 입소기간이 모든 노인에게 일괄 4개월로 지정<sup>3)</sup>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퇴소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하는 문제가 도출되고 있었다. 학대피해노인의 학대 피해 정도, 심각성, 그리고 사용자원의 정도에 따라 쉼과 회복, 퇴소준비를 위한 기간이 달리 적용되어야 함에도 유연성 있게 쉼터 이용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모호한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의 일시적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퇴소 후에 대면하게 될 학대행위자와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이었다. 노인학대 재발생 여부와 행위자 특성이 밀접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으나(Kim,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대행위자와의 실질적인 관계개선에 대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입소노인이 학대피해노인쉼터의 퇴소준비 과정에 대해 실질적 해결을 크게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Kim, 2015)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대피해노인에게 ‘쉼과 새 삶의 준비’라는 쉼터의 의미를 현실로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의 공간구조가 독립과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을 정비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입소 초기에는 다른 입소노인과 분리하여 학대피해노인이 편안하게 쉼을 가지는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쉼터는 가정집과 같은 구조여서 방을 같이 사용<sup>4)</sup>하는 것 뿐 아니라, 화장실, 욕실, 식사, 물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입소노인이 초기에 가지는 불안과 수치심, 그리고 긴장감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출되었기에 이를 충분히 보완할 쉼터 공간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서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의 주요 기능은 안정-회복-새 삶 준비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단계별 실천 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섬세하고 배려 있는 권위’를 사용해야 하며(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 2016),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에게 임파워먼트를 향상하기 위해 심신안정(쉼)-새로운 관계 경험-변화의 시작-새 삶의 구체화, 강점 및 자원 확보-새 삶의 실천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실천내용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의 역할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쉼터는 입소노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입소노인이 위의 단계별 실천구조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쉼터의 역할이 전문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입소노인이 내적체계 안정과 외적체계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체계를 마련하여 퇴소 후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후속연구들을 통해 입소경험의 의미를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학대유형에 따른 입소경험들도 탐

2) 쉼터 침실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고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쉼터는 일반 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방의 숫자가 제한되어 합숙용 중심으로 설치된 편이다(Kwon & Kim, 2017).

3) 쉼터 입소 기간은 4개월 이내이며, 재입소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9조의 24)

4) 일부 쉼터에서는 입소초기에는 가능한 혼자 방을 사용하도록 운영하기도 한다(Kwon & Kim, 2017).

색해 볼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Bae, Jin Hee and Ki Wook Um. 2009. Factors Affecting Suicide Attempt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9(4): 1427-1444.
- Beauchamp, T. L. and J. P. Childress. 2001.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BS No Cut News. 2019. 3. 3. If You Want to Live at 2000s Level, You Need to Increase Your Wealth by 25%. [www.nocutnews.co.kr/news/5112446](http://www.nocutnews.co.kr/news/5112446).
-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ist Views It. R. Valle and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48-71.
- Han, Eun Joo and Tae Hyun Kim. 2000. An Ecological Study on Causes of Elder Abus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31-89.
- Han, Sang Gyu. 2019. Phenomenological Study on Adolescents' Smartphone Addiction Process.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6(1): 7-22.
- Hankook Ilbo. 2018. 9. 27. Poor Old Korean... Six Out of Ten People Said, "I Make My Own Living Expenses". [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7113195689](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7113195689).
- Hong, Seong Ha.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Caring in Nursing Science. *Phenomenology and Contemporary Philosophy*. 50: 213-241.
-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Interests for the Disabled. 2016.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Persons with Abuse I: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with Abuse Victims.
- Kang, Sun Kyung and Yoon Hyoung Lim. 2005. The Study on Case Management for Elder Abuse Single Case Analysi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30: 191-213.
- Kim Yu Jin. 20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Abused Older Adults Regarding Abuse Recurrence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2): 315-346.
- Kim, Hae Sung. 2017. Elder Abuse and Domestic Violence Issues in Elder Abuse Cas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8): 499-508.
- Kim, Yeong Kyeong, Young Hae Kim, Jin Hyang Yang, Youn Ja Yoo, and Young Sook Tae. 2004. A Phenomenological Study of the Abuse Experience Among Korean Elderly Wome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5(1): 1-9.
- Ko, Jea Ug. 2014. A Study of Crisis Intervention Practice Model of Elder Abuse.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12: 197-220.
-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8. 2017 Report on The Status of Elder Abu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2019. 2018 Report on The Status of Elder Abu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won, Kum Ju and Hye Sun Kim. 2017. The Development of Shelter Model for the Elderly with Abuse Victims. Korea Elder Protection Agency.
- Kwon, Kum Ju and Hye Sun Kim. 2018.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helters for Elderly Abuse Victims Using AHP. *Crisisonomy*. 14(1): 91-105.
- Lee, Bong Jae and Soo Jung Park.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Happiness during Graduate School Life: Focusing on Students Juggling Work and Study in the Doctoral Program.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5): 199-226.
- Lee, Hyeon Min. 2018. Discussion on Direction of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Focused on Current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Journal of Guardianship and Trusts*. 1(1): 245-259.
- Lee, Keun Ho. 2007. Phenomenology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 Mode of Dialectic Study Between Uniqueness and Universality of the Phenomenon.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10(2): 41-64.
- Lee, Mi Jin and Hye Ryeon Kim. 2016. Elderly and Perpetrator Characteristics by Elder Abuse Type: Analysis of Elder Abuse Cases in Korean Elder Abuse Protective Service Agenc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3): 53-89.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 2017 Social indicators of Korea.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Special Estimation of Future Population 2017~2067.
- Population Health and Welfare Association. 2018. 2018 Report of World Population Status.
-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 in Korea(RIDRIK). 2016.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1.
- Seo, In Kyun and Yon Sil Lee. 2016.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3): 219-245.
- Shin, Kyung Rim, Myung Ok Cho, and Jin Hyang Yang.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Suh, Ghun Won. 2008. The Meaning Doing Qualitative Research.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6): 133-161.
- Woo, Kug Hee. 2002. The Meaning of Elder Abuse and Interventions for It: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People's Percep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0: 109-129.
- Yang, Ok Kyung and So Hee Ju.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to Suicidal Ideation among Single-household Elderly Populat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37(4): 321-347.
- Yeu, Hae Ryung. 2014. Phenomenological Writing: Creating the Space for the Ineffable. *The Journal of Anthropology of Education*. 17(4): 1-34.
- Zink, T., S. Regan, C. J. Jacobson, and S. N. Pabst. 2003. Cohort, Period, and Aging Effects: A Qualitative Study of Older Women's Reasons for Remaining in Abusive Relationships. *Violence Against Women*. 9(12): 1429-1441.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CBS 노컷 뉴스. 2019년 3월 3일자. 고령층 '2000년대 수준' 생활하려면 재산 25% 늘어야. [www.nocutnews.co.kr/news/5112446](http://www.nocutnews.co.kr/news/5112446).
- 강선경, 임윤형. 2005. 학대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개입에 관한 연구: 단일사례분석. *노인복지연구*. 30: 191-213.
- 고재욱. 2014. 노인학대 노부부의 위기개입을 통한 사례관리 연구. *한국케어매니먼트연구*. 12: 197-220.
- 권금주, 김혜선. 2017. 학대피해노인 전용웹터 발전모델개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권금주, 김혜선. 2018. AHP를 이용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웹터 모델 개발. *Crisisonomy*. 14(1): 91-105.
- 김영경, 김영혜, 양진향, 유연자, 태영숙. 2004. 한국 여성 노인의 학대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질적연구*. 5(1): 9-21.
- 김유진. 2015. 가정 내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외부개입을 체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5(2): 315-346.
- 김혜성. 2017. 노인학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본 노인학대와 가정폭력 문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8): 499-508.
- 배진희, 엄기욱. 2009. 노인의 자살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9(4): 1427-1444.
- 서근원. 2008. 질적연구 수행의 의미. *교육학연구*. 46(3): 133-161.
- 서인균, 이연실. 2016. 노인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1(3): 219-245.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옥경, 주소희. 2011. 독거노인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4): 321-347.
- 우국희. 2002. 노인학대의 의미와 사회적 개입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0: 109-129.
- 유혜령. 2014. 현상학적 글쓰기: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살아나는 공간 만들기. *교육인류학연구*. 17(4): 1-34.
- 이근호. 2007. 질적연구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독특성과 보편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 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미진, 김혜련. 2016. 노인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71(3): 53-89.
- 이봉재, 박수정. 2019. 대학원 생활 속 행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직 대학원 박사 과정 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5): 199-226.
- 이현민. 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방향 논의: 현행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후견과신탁*. 1(1): 245-259.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8. 2018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6. 학대피해장애인지원체계 기반 연구 I: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2017 노인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2018 노인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 통계청. 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 2019. 장애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 한국일보. 2018월 9월 27일자. 가난한 한국노인... 10명중 6명 “생활비 직접 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7113195689](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27113195689).
- 한상규. 2019.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상담심리교육복지학회지. 6(1): 7-22.
- 한은주, 김태현. 2000.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한국노년학. 20(2): 31-89.
- 홍성하. 2011. 간호학에서 돌봄(Caring)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과 현대철학. 50: 213-241.

---

Received: Aug. 11, 2020 / Revised: Aug. 25, 2020 / Accepted: Aug. 25, 2020

##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경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4개권역 5개소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중이거나 입소했던 9명의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Colaizzi의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된 연구참여자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경험은 ‘역장 무너지는 삶의 끝자락에 서다’, ‘모진 목숨을 이어갈 도움을 구하다’, ‘서러운 가슴을 안고 닳은 삶을 시작하다’, ‘대접받는 삶을 살아보다’, ‘삶의 상처를 보듬다’, ‘퇴소 날을 앞두고 애간장이 녹는다’, ‘새로운 삶을 설계하다’, ‘쉼터에서의 기억을 간직하며 살아가다’의 8개의 주제묶음이었다. 그리고 8개의 주제묶음을 통해 추출된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경험의 본질은 ‘쉼과 새 삶의 준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운영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노인학대, 학대피해노인의 경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질적방법

**Profiles** **Hye Sun Kim**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t. of Social Welfare and a director of Addiction and Trauma Recovery Institute 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er interesting areas of research and education are case management, mental health, addiction & trauma recovery, family therapy(welcom-kim@kangwon.ac.kr).

**Kum Ju Kwon**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07. She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ul Cyber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06. She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is elderly welfare, elder abuse, the rights of the elderly. She has published 25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3 books, including co-author(kkj@iscu.ac.kr).